

2일 부산 사상~하단선 지하안전 특별점검

- 국토부, 지방청, 국토안전관리원·철도공단 및 민간전문가 합동 특별점검
- 흠막이 공법 등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 상황과 지반침하 대응현황 점검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0월 2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사상~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점검한다.
 - 해당 현장은 지난 9월 21일 지반침하로 인해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 현장의 인근 공사현장으로,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, 부산시의 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.
- 부산시 사상~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 공사 특성을 고려할 때, 면밀한 시공·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현장이나 올해에만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.
 - 이에, 부산시에서는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, 국토안전관리원, 국가철도공단, 한국지하안전협회 및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,
 - 부산시의 사고원인조사 및 복구현황·지방사고조사위원회 운영현황·향후 지하안전사고예방, 대응계획 등을 살펴보고, 현장의 공사중 흠막이 공법·차수공법·계측관리 현황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.
- 이날 점검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는 지반침하 우려 등 난이도가 높은 만큼 침하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”면서,

- 앞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파악과 현장 안전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동주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전미자 (044-201-3579)